



진주행 첫 열차를 탄다. 아버지의 제삿날에 맞추어 가는 길이다. 철교에서 내려다보이는 강물은 무덤덤하기만 하다. 고기비늘 같은 반짝임도 없고 바람결에 일렁임도 없다. 아무런 표정없이 흐를 뿐이다.

지난 늦가을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일에 맞추어 고인의 산소를 찾았었다. 망자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성묘를 하고 싶었다.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장유로 가는 버스를 탔다. 40분 남짓 걸리는 길이었다. 도중에 낙

에는 어린 모가 곳곳이 서 있다. 일손이 모자라서일까. 모내기 철인데도 군데군데 물만 대어놓은 눈 바라보니 한숨이 나온다. 차창 밖의 상수리나무, 울긋불긋한 슬레이트 지붕, 화장품 회사의 대형 입간판……. 모든 풍경이 뒤로뒤로 바빠 스러져간다. 37년의 갖가지 추억들이 기차바퀴를 따라 하나씩 다가왔다 밀려난다.

여러가지 회상 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언제나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수많은 모습에는 사랑과 증오, 연민 그리고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내가 9살 때 서울의 병원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고향집에서 전보를 받은 아버지는 계사(鷄舍)안에서 나를 안고 하염없이 우셨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보다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모습이 더 슬펐다. 어린 나의 뇌리에 아버지는 부드럽고 아늑한 분으로 새겨져 있다.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위로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고 믿었다.

여객 전무의 음성이 귓가를 스친다.

“이 열차는 평택역과 조치원역에서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조치원역이라.’

잠시 눈을 감는다. 이제는 많이 희석되었지만 경부선을 타고 조치원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다.

국민학교 5학년 여름이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동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다리 너머로 삼각주의 지평선이 눈에 들어왔다. 7백리를 돌고 돌아온 강물이 다리 밑으로 흘러간다. 끝간데 없이 펼쳐진 평야 너머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묘소에서 내려다본 그 강은 하얀 선으로 꼬리를 끌며 구불구불 줄기차게 이어져 있었다. 그 강물은 그때에도 10년 전에도 그곳을 스쳐 갔으리라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때 새삼스럽게 눈으로 가슴으로 강물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다.

지금, 차창 밖은 완전한 초여름이다. 간이역 주변의 사철나무 잎은 짙은 색으로 변해가고 들녘

조 은 속
(수필가)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져 우리는 고향을 뜰 수 밖에 없었다. 어느날 새벽, 아버지는 자고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그길로 집을 떠났다. 조치원역에 내렸을 때 하늘에도 별들만 가득했다. 역무원이 차표를 덜 끊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사무실로 밀어 넣었다. 나는 역사 한 편에서 국민학교 1학년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역사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햇빛을 안고 행복해 보였다. 모든 사람이 방금 벗어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것 같아 고개를 꼭 숙이고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태연히 걷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것 때문에 나는 미움이 이글거렸다. 이런 감정은 사춘기를 거치면서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버지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 하였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쌓여 갔다.

고향역에 도착했다. 오후 2시 해를 머리에 이고 역앞 광장에 섰다. 한가롭게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만이 조는 듯 서 있다. 모두가 반수면 상태에 있는 시각에 혼자서 조금 한 발길로 6시간의 기차여행 끝

에 도착한 것이다. 낙동강 지류인 주천강 독길을 걷는다. 다리 난간에 붙어섰다. 비바람 속에서 콘크리트는 깨져 나갔고 앙상한 철근만이 남아있다. 녹난 철근을 꼭 감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 누런 강물이 흐른다. 역새플에 가리워진 강폭이 더 좋아 보인다. 이 황토색의 하층은 강물을 보고자 아버지는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도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했던가.

위독하다는 전갈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20일째 베개만 부여안고 침대에 앉아 계셨다. 누우시라는 우리들의 말은 들은 체도 않고.

“선생님, 제발 살려 주이소. 할 일이 너무 많습디. 살아서 고향에 가게 해 주이소”라고 떠업 떠업 말하며 의사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벽찬 정, 그것은 오로지 연민이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벽들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으로 말했다.

‘이제껏 못 이룬 것은 포기하이소.’

아버지는 나의 눈빛을 읽었는지 다음날 새벽에 운명하셨다. 아버지의 영구는 이 다리 위에서 고향집을 바라보고 떠났다. 미움

과 원망, 수치감으로 범벅이 되어 나를 누르던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과의 사이에 있던 벽도 무너져 자취가 없다. 수치감과 원망은 멀어져 간다. 가족의 기차표를 사지 못하고도 역무원 앞에서 당당하던, 그 상황에서 꾸며지고 위장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세월속에서 연민으로 굳어져 갔다. 연민은 아픔이 되어 비수처럼 나를 찌른다.

초라한 강물 속에 아버지의 64년의 고달픈 삶과 한이 묻혀 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던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던 아버지는 가셨고 살아서 돌아가기를 갈망하던 고향땅도 부서져 변모했다. 나도 서울이라는 크나큰 땅에서 닳고 닳은 도시인으로 변모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도 내일의 내가 아닌 것이다.

강물은 어제와 같이 흐르고 30년전, 50년 전과 다름없이 흐른다. 그러나 그 때의 그 물은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 물결을 따라 내가, 이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 그것은 공허와 비애가 아니라 차라리 고마운 현상인지도 모른다.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